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Follower!**

< 주제성구 >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꿈과 어긋나,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습과 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Follower’로 부르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와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로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 봅시다.

두 번째 걸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방식을 배우고 익혀봅시다. 훈련이 몸에 익

은 사람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은 교회와 세상으로 보냄 받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봅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Leader’인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Follower’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Follower’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이끄는 또 다른 ‘Leader’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Follower’와 ‘Leader’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징

1) 양육

<Follower>는 예수님의 제자 됨을 목적으로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름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우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교재를 통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나눔

<Follower>에서 제자 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경청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별 메시지를 듣고, 이해와 감정, 의지로 응답하며 살도록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열린 질문을 통해 자기 성찰과 제자의 내면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동체가 이 과정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자기 응답만 아니라, 타인과 나의 생각을 나누고, 경청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자기 표현을 위해 ‘I(image)카드’, ‘E(emotion)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I 카드’는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삶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E 카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질문을 넘어 다양한 나눔을 위해 'Q(question)카드'를 준비했습니다.

'Q 카드'는 다양한 질문이 담긴 카드입니다.

제자 됨으로의 여정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해가길 기대합니다.

3) 단순

<Follower>는 구성의 단순화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필요한 소그룹 양육과 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각 과를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라는 구성을 통해 기도-나눔-배움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기도, 나눔, 배움을 통해 집중된 양육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용법

<Follower>는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활용하는 교재입니다. 매주 한과씩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가는 '제자도'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지도자는 미리 교재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본 교재의 각과 진행 순서는 『함께 기도(INTRO)-나눔(OPENING)-배움(MEETING)-나눔(FOLLOWING)-함께 기도(OUTRO)』입니다.

- IN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 OPENING의 가벼운 삶의 나눔을 통해 마음을 엽니다.
- MEETING의 내용을 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룹니다.
- FOLLOWING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가집니다.
- OUTRO의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며 과의 막을 내립니다.

기도로 들어가,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함께 기도로 나오는 과정을 익힘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본적인 틀을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해당 과와 관련된 기도문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닫혔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과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 혹은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주제에 맞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에 소개된 ‘두 문장’을 통해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과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위해 준비한 Q카드, I카드, E카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지도자와 청소년이 함께 읽으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설 계

1권은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 2~3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심, 4~5권은 교회와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1권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과 방법을 살펴보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결단으로 인도하며, 이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2권은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알아갑니다.

3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알아갑니다.

2~3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인도합니다.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고 익힙니다.

4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대해 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하는지 알아갑니다.

5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을 말과 삶으로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4~5권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익힙니다.



1권

Follow Jesus

- | | | |
|----|----------------------------|------|
| 01 | Follow me 마 4:18-20 | • 09 |
| 02 | 처음, 우리는? 창 1:31 | • 13 |
| 03 | No, 이건 아니지 창 2:16-17 | • 17 |
| 04 | 나에게 중.꺾.마. 요 3:16-17 | • 21 |
| 05 | 선물처럼 너에게 가겠다 엡 2:8 | • 25 |
| 06 | 오늘, 나는 너를 부른다 막 16:15-16 | • 29 |
| 07 | 경로이탈, U-turn이 필요해 막 1:15 | • 33 |
| 08 | 결단이 필요해 눅 19:8-9 | • 37 |
| 09 | 너 달라졌어 요 1:12 | • 41 |
| 10 |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요 14:16-17 | • 45 |
| 11 | 그 길에 희망이 있다 계 21:1-7 | • 49 |

세 가지 카드 만나기



옆의 QR코드의 링크를 통해 준비된 카드(PDF)를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emotion)을 다양한 카드 속에서 찾아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image)로 나의 느낌을 말 대신 담아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question)을 넘어 더욱 다양한 물음을 묻고 나눌 수 있습니다.

Follow me

마태복음 4장 18-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하나님, “나를 따라오라”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Q카드의 질문을 골라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요.

(ex :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내가 스트레스 풀 때 먹는 음식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나요?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 볼까요?



나만의 인생 영화, 음식점, 책 등을 갖고 있나요? 내 마음을 위로해 준 영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점, 삶의 태도를 바꿔준 책! 이런 것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아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멋진 경험을 나누고, 함께 하자고 권유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경험하고 싶은 멋진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실 때였습니다. 그 때 두 형제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Follow me!”

예수님은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을까요? 먼저, 그들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 맛볼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준비된 복을 누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실 때,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했습니다.

어부는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와 함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 올리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실행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게 했고, 이들을 훗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장면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세워가는 장면들을 꿈꿉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람들을 찾았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 ☑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1)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2)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선택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오늘 배운 내용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처음, 우리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있는 좋은 성품이나 장점, 다른 친구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을 소개해 주세요.

(ex. 저는 경청을 잘해요. 인내심이 커요. 느긋해요.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빠른 결정력이 돋보여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있나요? 5년, 10년, 15년 후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있길 꿈꾸고 있나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 당장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더 보세요. 자신이 마음에 품었던 모습을 향해 나아갈 때,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의 그림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로 가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길 꿈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길 원했습니다.

처음 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좋았더라!”를 외쳤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Good! Good!”을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며, 처음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꿈꾸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Good, Good!”을 외치시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그러한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습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처음,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니다. 나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세상을 사랑으로, 지혜로 돌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그 모습이 실현되길’ 기도 하며 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처음 세상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꿈꾸며, 이루어갈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며 심히 좋아서 미소 짓는 삶, “Good, Good!” 외치시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 ☑️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꿈꾸셨나요?
- ☑️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1) 세상과 사람을 내가 창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고 싶나요?

(2)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요?



(3)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Good!” 이라고 외칠 것 같은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Good!” 이라고 외치실 것 같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심히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No, 이건 아니지

창세기 2장 16-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 2:16-17)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정직하게 보게 해주세요.



요즘 내가 주변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이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을 서로 나누어주세요.

내가 가장 듣고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은 후,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이 계속 세상에 펼쳐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쉽지만, 그 기대와 어긋난 세상의 모습을 마주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소식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워버린 전염병에 관련된 소식은 염려를 일으킵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한 소식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은 탄식을 불러일으킵니다.

혹시, 다양한 소식들 중에서 “No,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어떤 소식이었나요? 성경에도 “No, 이건 아니지!”라고 외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지혜로 세상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정말 좋은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첫 불순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는 선택이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담은 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선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담은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떨어질 타(墮), 떨어질 락(落)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났고, 사람들이 악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 어긋난 상태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서로를 지배하려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던 세상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Good!”을 외치시던 세상이 “No!”를 외쳐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No, 이진 아니지.’라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담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발자취를 향해서는 “No!”, 예수님을 향해서는 “Yes!”를 외치며 걷는 사람입니다.



- ✓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 안타까운, 화가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 ✓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1) ‘타락한 세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2)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3) 나의 모습 중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나요?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해주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나에게 중.꺾.마.

요한복음 3장 16-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밸런스 게임이에요. 다음 중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서로 다양한 밸런스 게임을 만들어보세요.)

ex) 잠 vs 밥

급식이 맛있는데 오래 기다려야함 vs 급식이 맛없는데 빨리 먹
을 수 있음

혼자 부패 vs 혼자 놀이동산

상의 교복 하의 체육복 vs 상의 체육복 하의 교복

두발자유 vs 교복자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 그러나 타락한 세상, 그 속에서 하
나님의 선택을 알아볼까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은 축구감독, 선수들, 팬들에겐 꿈의 무대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치열한 지역예선을 통과해야 나갈 수 있는 대회입니다. 오랫동안 수고로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거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쏟았던 일과 관계가 기대와 다르게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릴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타락한 세상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을 향한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계획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긋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가르쳤고,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긋나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용서를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 속에 서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타락했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며 사람들을 새로운 길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마음입니다.



- ☑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 ☑ 타락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1) 포기하고 싶은 사람, 물건, 일들이 있었나요?

(2)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나에게 어떤 생각, 감정을 들게 하나요?



(3)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응답하고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물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 2:8)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래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서로 이야기해 보아요.
(다른 주제를 정해 이야기해도 좋아요.)

ex) 아침에 일어나서, 이 닦기 먼저 vs 밥 먹기 먼저
옷을 입을 때, 양말 먼저 vs 옷 먼저
급식 먹을 때, 밥 먼저 vs 국 먼저 vs 반찬 먼저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vs 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 누가 먼저 다가갔을까요?



사람들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긋난 삶의 방향을 돌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존 스토틀(John Stott, 1921-2011) 목사님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2020, IVP)라는 책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쫓아오신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추적이 없었다면, 그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에게, 어리석은 선택으로 후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낙심과 좌

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손 내밀었습니다. 성별, 인종, 소유, 지위, 교육, 직업, 지역에 상관없이 그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 문을 먼저 두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사랑은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붙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선물처럼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어둠 속에 갇히면, 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빛을 들고 누군가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빛을 비춥니다. “나를 따라오라”며 손을 내밅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선물처럼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선물처럼 다가오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 ☑ 하나님과 나, 누가 먼저 다가갔을까요?
- ☑ 예수님은 □□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아니면 즐거운가요?

(2) 누군가 나에게 먼저 다가왔던 경험이 있나요?

그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3) 오늘 배움을 통해 든 생각, 느낀 점을 이미지 카드 혹은 영화나 노래 제목, 가사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가와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나는 너를 부른다.

마가복음 16장 15-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나요?

이 때 우리의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낼 문자 속 내 호칭은 무엇일까요?



어느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예배 중 목사님의 열정적인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는 말씀에 학생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을 가진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예전 중요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후,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으니, 사람들을 부를 수 없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고 있을까요?

부활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부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사람들을 예수님게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사건과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제자들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과 신앙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냈던 것처럼, 교회에도 성령님이 거하고 있습

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을 불렀던 것처럼, 교회와도 함께하며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시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 했나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자고 친구를 초청하고 있나요? 이 초청 속에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친구에게 예수님을 따르자고 이야기할 수 있길 기대해요.

스마트폰과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를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의 음악이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듯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교회를 통해 전달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 믿어지나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전도와 가르침 속에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시다.



- ☑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 ☑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부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나요?



(1)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2)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이미지로 표현해 보세요.



(3)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르심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경로 이탈, U-turn이 필요해.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만나고 싶은 유명인이나 사람이 있나요?
만났을 때,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가족 여행을 떠나는 차 안, 아이들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소리가 커질수록 자동차 네비게이션의 안내 소리는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갈림길에서 안내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비게이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전방에서 U-turn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경로이탈, U-turn이 필요해”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될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은 기뻐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는 “U-turn”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어긋나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최종 결론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부활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의 첫 걸음은 회개, 즉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죄의 길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그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살아왔구나, 이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어긋나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셨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 내가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죄를 멈추고, 하나님과 어긋난 삶을 멈춥니다. 더불어 하나님에게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회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 이끌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U-turn”을 외치십니다. 방향을 돌이켜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난 길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첫 걸음입니다.



- ✓ 예수님은 ☐☐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습니다.
- ✓ 회개는 ☐☐☐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는 일입니다.



(1)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서로 나누지 않고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2)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3) 각자 회개 기도문을 적어봅시다.



하나님,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곁에 품어주세요.

결단이 필요해.

누가복음 19장 8-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절이나 갚겠나이다 (눅 19:8)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뇌 구조 만들기를 해보세요. 나의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앞으로 나의 머릿속 구조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싶나요?

(ex. SNS, 잠, 친구, 기도, 시험, 찬양, 운동, 게임, 가족 등)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까요?



‘어떤 음식점을 가야 할지,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할지, 어떤 책을 사야 할지’ 우리는 다양한 고민을 하며 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얻는 부분, 잃는 부분, 책임져야 할 부분, 포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고민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든지, 학원에 등록하든지, 돈을 주고 책을 사든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면, 얻을 수 있는 것, 잃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같은 유대 민족에게 돈을 걷어 지배국인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세리를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인을 품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게 소유를 늘리던 일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갚아야 할 부분들을 정직하게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를 나누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과 어긋났던 삶을 멈춤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쓰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사람들을 섬기는 이야기를 쓰는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Good!”을 외치는 삶을 향해 나아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 그 지점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 ☑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야 합니다.
- ☑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1) 선택을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잃을까 중 무엇인가요?



(2)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가요?



(3)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너 달라졌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하나님,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자주 읽는 옷이나 내가 읽는 교복의 특징을 소개해 보세요.

(장점, 단점, 특이한 점 등)

(미리 공지를 해서 소개하고 싶은 옷이나 교복을 입고 참여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달라졌나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면 새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은 자신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나요? 교복이 아닌 자신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은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옷만 바꿔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일까요? 만약 진흙탕에서 하루 종일 놀고, 엉망이 된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아침부터 온몸을 씻고,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동안 죄로 얼룩진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흠 없는 의의 옷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죄로 얼룩졌으나 이제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Good!”이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삶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줍니다. 단지, 옷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벗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옷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던 흠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흠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갈 3:26-27).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Good”을 외치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 ☑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요?
- ☑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로 여겨 주십니다.



(1)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2) 죄의 옷을 입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을 때,
각각 어떤 감정일까요?



(3) 메모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으로 이름표를 만들어 붙이고, 서로 소리
내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야”라고 불러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16-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 14:16)



하나님, 함께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먼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길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나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알고 있나요?



어둔 밤, 으스스한 골목을 혼자 처음 걸어가야 한다면, 무엇인가 등장하지는 않을지, 웅덩이는 없는지, 장애물은 없는지 걱정하면서 한 걸음씩 움직여 긴장감이 극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걷게 된다면 어떨까요? 손을 꼭 잡고 걸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낯선 길을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여정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할 것을 밝혔습니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함을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졌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고난 속에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혼란스러울 때 지혜로운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소망을 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감당해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 ☑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 ☑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 (1)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는 언제, 어떤 상황일까요?
그 시간을 이미지로 표현해 보세요.



- (2) 성령님은 내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 (3) 내가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말을 옆 친구에게 적어서 나누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길에 희망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 21:1)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세상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무더운 여름이 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 땀이 납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두껍게 입어도 차가운 기운이 떠나지 않습니다. 잠시만 나가도 온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도, 온몸이 덜덜 떨리는 추위도 영원하진 않다는 점입니다.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무더위가 가고, 가을이 올 것이며, 추위가 가고, 봄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다가오는 더위와 추위와 같은 일들을 견디며 건너갑니다. 희망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겐 “천국소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지만,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화된 제자들과 변화되지 않은 세상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희망찬 이야기만 들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살아갈 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해에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미혹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세상에 다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룰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경험하며 탄식하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희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전했습니다(벧후 1:11).

요한은 박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전달했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계 21:1-7).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치유되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때로는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끝은 허무와 한숨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은 찬송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이로 인해 그 길 속에서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을 전했습니다.

✓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을 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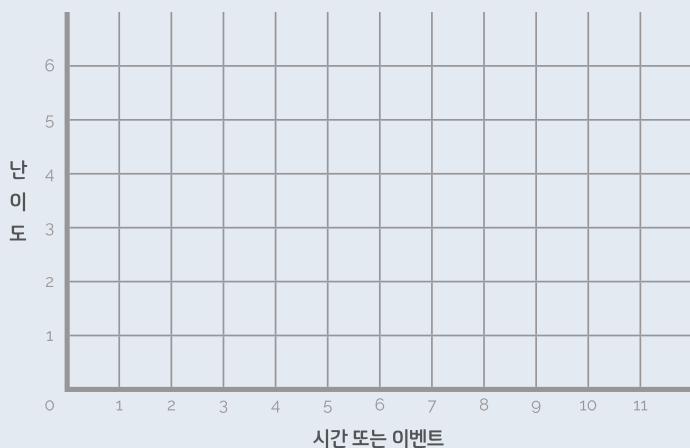


(1)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지로 표현해 보세요.



(2) 예수님을 믿은 이후 마주했던 어려움이 있나요? 이를 난이도로 표현해 보세요.



(3)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어떠한 감정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살게 하주세요.

MEMO



MEMO

MEMO

FOLLOWER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발행일 2024. 8.
발행인 김두범
편집인 조성환 신혜경 이상지
편집위원 정승환 오선주 이반석 이태진
감수 박찬웅 양성진
그림 김유림
교정교열 황보현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본부 교육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전화 02-399-4371, 4367
디자인 및 제작 디자인통

〈비매품〉